

김호영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75주년기념 자료집』 발행

인터뷰이 김호영 대한사진예술가협회 고문

인터뷰어 류지훈 기자

8.15 해방부터 6.25 전쟁, 군부독재와 민주화 등 대한민국 역사를 모두 아우르며 함께한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75년의 역사가 370여 점의 도판, 256페이지로 압축되어 지난 2월 발행되었다. 지난 일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사진 예술가협회 창립75주년기념 자료집』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사협의 김호영 고문을 만나 인터뷰하며 풍성한 자료를 통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났다.

먼저 75주년 자료집 발행을 축하드리며, 대한사진예술가 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故 이해선 선생이 전국의 사진가를 규합해 '조선사진예술연구회'를 발족했고,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계기로 '대한사진예술연구회'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지금의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이하 대한사협)'가 되어 77년의 역사를 잇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단체이지요. 1945년 창립 당시는 일본 사진을 추종하고 모방하는 시기였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우리 사진의 힘을 길러 새로운 사진 문화를 건설하자는 것이 창립의 목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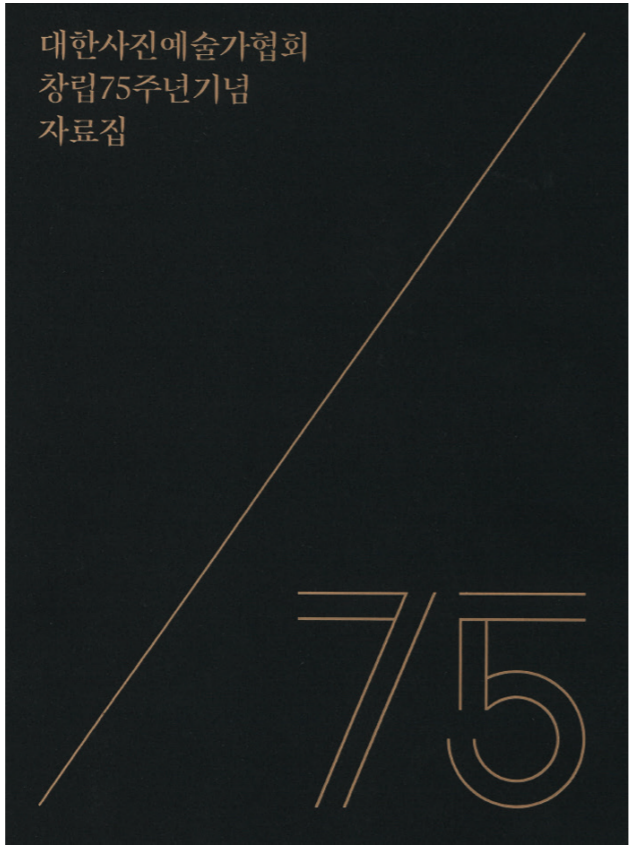
협회의 자료집을 편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대한사협의 31대, 32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그간의 자료가 담긴 상자들이 인수인계되곤 했지요. 회원들의 큰 관심 없이 봉인된 채로 수십 년 동안 오간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부서져 가는 종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역대 사연회보나 공문서 등 대한사협의 옛날 자료들이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그 자료들의 대부분을 스캔했고, 파일로 보관했습니다.

사실은 1945년 해방 직후 대한사협이 창립되고 75주년 되던 해인 2020년에 전국 회원 전시를 기획했어요. 그

러나 코로나로 무산됐고, 안타까워하던 차에 생각한 게 이 기회에 우리의 75년을 정리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 75년은 손자까지 온 것이니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이 귀중한 자료를 이대로 두면 부식이나 더 심해질 거고 무관심 속에 전해지다 보면 분실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 창립자 백오 이해선
▷▽ 1947년, 1975년, 1977년 월례 촬영 단체사진
▷▽ 1959년 서울시 경찰국장 과 서울시 동대문경찰서장에 보내는 사진촬영대회 서약서와 집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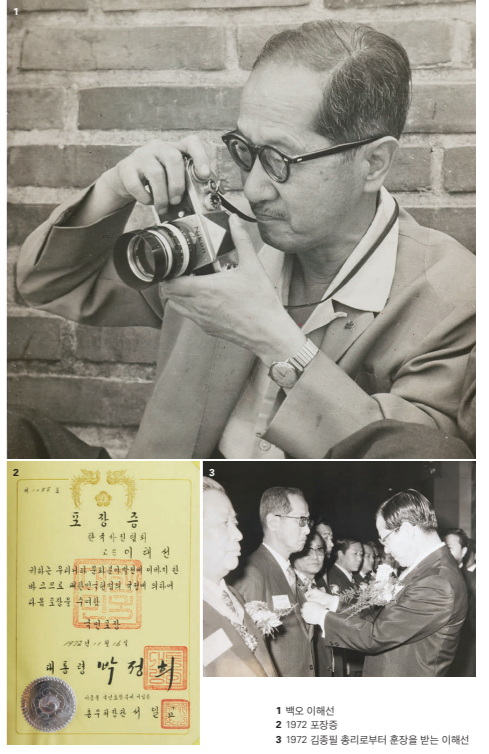


백오(白鳥) 이해선(李海善) 선생

1905.6.19	서울 기회동에서 농수공 이달용의 장남으로 출생	작품발표
1917	충정공 민영환의 둘째 딸과 결혼	일본 아시아국제사진술협회
1930	일본 도쿄미술학교 서양화와 졸업 사회협회 가입	경성아마추어카메라구락부 회원전 출품
	일본 아시아국제사진술협회	백양사우회 회원전 출품
1932	이왕가박물관(창경궁 소재) 고미술품 관리위원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원전 27회 출품
1934	이왕가박물관(창경궁 소재) 석조전 운영위원	한국시립전 출품
1936	경성아마추어카메라구락부 창립 (지도위원 역임)	국전 초대출품(10여회)
1939	백양사우회 창립 (지도위원 역임)	국제사진문화교류전 출품
1945	조선사진예술연구회(현 대한사진예술가협회)창립 (지도위원, 회장, 고문, 명예회장 역임)	원로작가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출품)
1962	한국사진협회(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 (고문 역임)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 유작 출품
1964-80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심사위원 10여회	사진묘화, 카메라 예술, 포토그라피(현 월간사진) 영상 등 사진잡지에 작품 발표
1964-65	동아사진전람회 심사위원	1974.11.20-24 고회기념 사진작품 개인전 <항도풍물 50장>, 신문회관화랑
1966-67	동아국제사진술총 심사위원	2005.10.31-11.5 탄신 100년기념 유작전 <사라진 풍물>, 송유로 씨이드림 포토 갤러리
1970	문화예술상(예술환상) 미술부문 심사위원	2006.12.28-2007.3.4 이해선 사진전 <1950-60년대 이야기>, 동강사진박물관
1976	서울특별시문화상 심사위원	
1976-79	국전 운영위원회(4부 본과위원장 2회 역임)	
1983.10.30	별세	

수상
1971 한국사진문학상(한국사협) 권료상
1972 대한사협상 공로상
1972 국민포장 수상
1978 현대사진문학상(현대고대) 수상

저서
이해선 사진자료집(1980, 비매출)
한국의 고궁(1980.1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이해선 사진집-사진으로 남은 1950-60년대(2005.10. 논빛)
이해선 사진집-1950-60년대 이야기(2006.12. 동강사진박물관)



1 백오 이해선
2 1972 포장증
3 1972 김종필 총리로부터 훈장을 받는 이해선

월례촬영

1 1947.06.01 수원
2 1975.05.25 무문동산
3 1977

5 1959.06 사진촬영대회(비범) 서약서(서울시 경찰국장 귀하)
6 1959.06 사진촬영대회(비범) 집회계(서울시 동대문경찰서장 귀하)
7 1959.06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14주년기념 촬영대회 개최 요강, 작품모집규정, 수상, 시상 및 작품발표, 후원(한국일보사)



그외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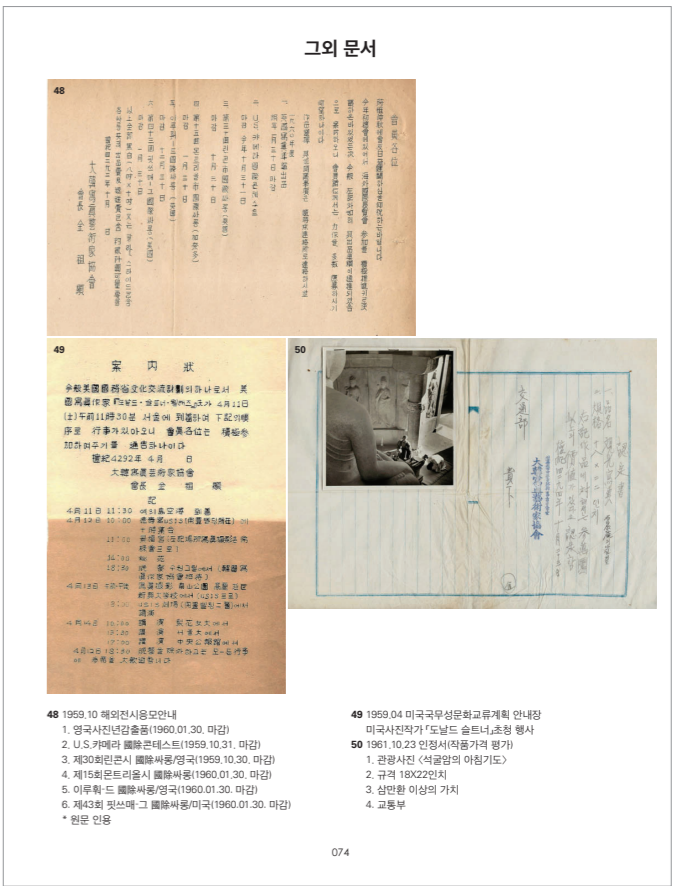
- 31 1950-1960 문서철
- 32 1959 명부(정회설 제작)
- 33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회원명부
- 34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회원명부(정회설 제작)
- 35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회원명부(정회설 제작)



2 『사연회보』 제2호, 1947.06.13



4 『사연회보』 제4호, 1954.03.12



그외 문서

- 48 1959.10 해외전시유단안내
- 1. 영국사건년감출품(1960.01.30. 마감)
- 2. U.S. 카메라 國際콘테스트(1959.10.31. 마감)
- 3. 제30회민간시 國際서용/영국(1959.10.30. 마감)
- 4. 제15회문트러울시 國際서용(1960.01.30. 마감)
- 5. 이무학 드 國際서용/영국(1960.01.30. 마감)
- 6. 제43회 핏쓰매그 國際서용/미국(1960.01.30. 마감)
- * 원문 인용

- 49 1959.04 미국국무성문화고려계획 안내장
- 미국사건년가 "도널드 슬트너 초청 행사"
- 50 1961.10.23 인형서(작품가게 열거)
- 1. 관광사진 <식공원의 아침기도>
- 2. 규격 18X22인치
- 3. 삼만환 이상의 가치
- 4. 교통부

서 75주년 자료집을 내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흠어져 있는 대한사협 자료를 정리했지요.

75년의 세월을 한 곳에 모으는 일, 어렵지는 않았나요?

대한사협 주원상 부회장을 중심으로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창립75주년기념 자료집' 간행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관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도서관을 비롯해 예전의 신문 기사, 개인이 소장한 문서까지도 찾아가며 우리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아카이브연구소와 한국 사진문화연구소의 도움도 컸지요. 여기저기 흠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2020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수집과 정리를 마쳤고, 마침내 총 373점의 도판이 수록된 자료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료를 가지고 75년 역사를 쓰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모은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발표해 말 그대로 순수한 자료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문을 번역한 것도 편집 과정에서 생략되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이지요.

대한사협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자료집을 편찬하며 옛 기억이 떠올랐을 텐데요.

1968년 처음 입회하고 8년 동안 대한사협의 창립자인故 이해선 선생에게 사진을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간 『사진예술』의故 이명동 창간 발행인, 박필호, 서순삼, 현일영 선생 등 한국 사진계 1세대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지요. 회원명부 도판을 보면 알겠지만, 사진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 대부분이 대한사협을 거쳤습니다. 문득 나중에 저세상에서 이해선 선생을 비롯한 초창기 대한사협을 이끌었던 분들은 만나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라도 정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편찬하는 내내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나마 대한사협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혹

△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회원명부
 △ 1947년 발행한 『사연회보』 제2호
 ▷ 1954년 발행한 『사연회보』 제4호
 ▷ 1961년 건설교통부에 보내는 작품인정서

은 한국 사진계를 위해서 무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진계에서는 이런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해요. 그러한 점에서 이렇게 정리라도 해야 그분들을 볼 면목이 서는 일이지요.

우리나라와 사진계를 위한 고민이라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사연회보』는 협회 및 회원 동정이나 사진 관련 정보 등을 신던 소식지인데, 1947년 회보에서 '카메라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우리가 다년간 독일 쾰러아이콘 회사(Zeiss Ikon), 라이스 회사(Leica) 외 여러 카메라를 (...) 그 성능을 적소에서 충분히 발휘치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라 하겠으니 대외유출을 적극 방지하고 회원 제한은 물론이어나와 일반 애호가 제위에서도 카메라로서 건국도상사진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바라는 바이다." 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카메라가 귀해진 시점에 (비싼 값이라도) 내다 팔지 말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사진으로 도움을 보태는 것이 적절한 쓰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또한 1954년 회보의 '회원에게 드리는 격려의 말'에서는 후천에 이르렀는데, 우리 회원들도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선배들의 열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6.25 전쟁 중에도 부산으로 피난해 전시회를 3번이나 개최한 것을 보면, 정말 사진에 미쳐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상을 관찰해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정부나 관공서와 주고받은 공문도 눈에 띄네요.

1961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정부에서 석공암 사진을 관광 홍보물로 쓰기 위한 구매에 앞서 그 감정을 대한사협에 의뢰했어

회원전



1 합동예술사진전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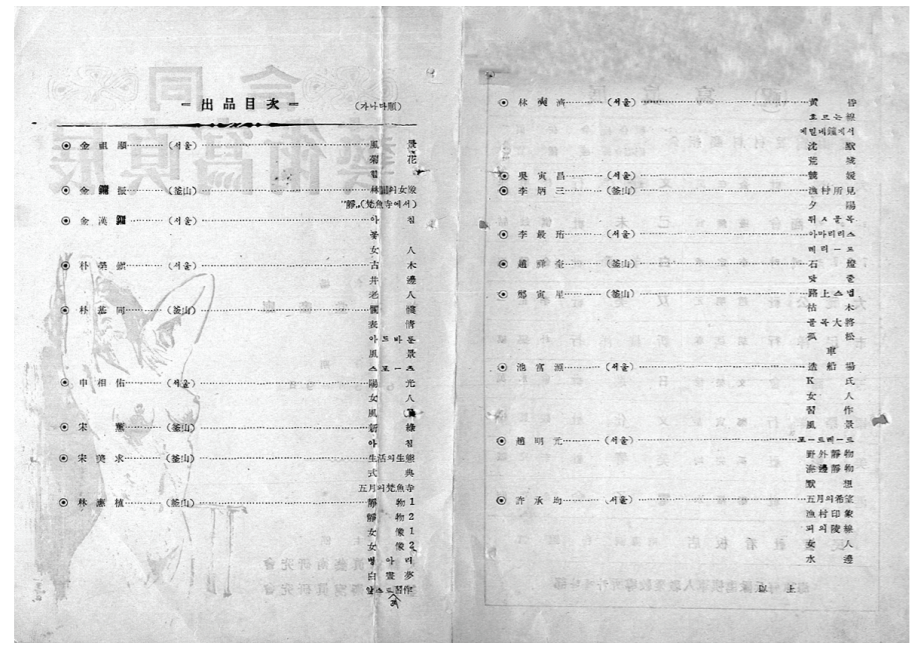


2 제4회 작품발표전
3 제5회 작품발표전

회원전



56 제57회 회원전
57 제60회 대한사협 회원전



그래서 대한사협이 사진의 규격과 내용을 기입해 3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서를 작성해 회신한 내용이 자료집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대한사협은 그간 매년 일반 사진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촬영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때마다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료집에는 1959년 서울시 경찰국장에게 보내는 서약서와 동대문경찰서장에게 보내는 집회계 공문 도판이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서 잘 지키고 할 테니 허락해 달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75주년 자료집을 정리한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후련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걸 제 회장 임기 안에 정리했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해요. 그간 한국의 사진사를 다룬 책은 있었지만, 이번 자료집이 다소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진계의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야기와 정치적인 이야기 담겨 있다는 것이예요.

또한 사진사 연구자들이 우리가 엮은 자료를 토대로 해방 이후의 한국 사진계를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책에 수록된 자료들은 체계적인 보존 방식을 갖춘 박물관에서 보관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야 접근성도 좋아져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겠지요.

김호영은 1968년 고려대학교 1학년 재학 시절 대한사진예술가협회에 입회하여 현재 대한사협의 회원 중 2번째로 오랜 역사를 함께했다. 제 31, 32대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장, 고려대학교 부총장과 기계공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대한사협의 교문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 △ 1952년, 1953년 부산 피난 당시 개최한 합동예술사진전, 작품발표전
△▷ 제 57-60회 대한사협 회원전 초대장